

다원주의 사회와 소통 - 기독교 가치의 세속화를 중심으로

대학원생/ 이지은

1. 서론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원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원주의는 필연적으로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행해지는 폭력을 목도해 온 인류는 ‘다름’을,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이에 충실한 개념이 바로 오늘날의 ‘다원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다원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어떤 하나의 사상과 가치관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게 되어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는 보다 나아진 한편, 각 집단 별로 추구하는 다른 가치가 다르고, 다른 가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는 다원주의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 내의 결속은 더욱 강화되는 반면 다른 집단들과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각 가치관에 대한 표면적인 수준에서의 이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역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단절되고 여러 그룹으로 분열되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와 접하기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판단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가치관의 홍수 속에 노출되다 보니 아노미 현상에 빠지게 되어 혼란에 빠지고, 그런 방향이 지속되면 정신적으로 성숙할 만한 환경을 갖지 못하게 되어 여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다원주의는 현실적으로 집단 간의 갈등을 원활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단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나도 옳고 너도 옳다’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쟁 후에 합의점에 도달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서조차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다원주의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예민한 문제에 해당한다면 집단 간의 갈등은 내부적으로 더욱 고조되기에 이르러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는 집단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상대적으로-자신의 집단에 비추어 보았을 때-‘악인’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가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집단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원주의는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원주의를 폐기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단지 우리 사회에게는 다원주의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그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가기까지의 과도기를 넉넉히 견뎌내고 감내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불편함에 대해 기독교가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원주의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독교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의 선물과도 같은 기회의 시기인지에 대해 논하며 우리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다원주의 사회를 수용할 수 있는 용기

인간은 유구한 정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원시종교 때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죄’의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 합리성이 결여되고 정념을 해소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던 원시종교의 경우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만들어 내었고 부정된 것은 전부 ‘죄’라는 큰 개념 안에서 이해되었다. 인간이 정죄한 죄인은 속죄의식을 통해 반드시 희생당해야만 했고, 그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죄’란 절대적인 것인가? 기독교를 포함한 각 종교 안에서 ‘죄’라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각 종교에서 설정한 절대 가치가 있고 그 절대 가치가 제시하는 죄의 개념이

죄라고 이해되고 수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 혹은 중세와 같이 같은 종교적 규범을 공유하고 수용하는 시대를 지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다원주의에 입각한 사고방식이 보편적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죄’라는 것은 사회생물학적 개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유용성’에 입각해서 도덕과 죄라는 개념이 설정되므로, ‘죄’라는 것은 다른 사회 구성원을 해치지 않는 수동적 태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다. 각 종교 내의 절대 가치가 명명하는 죄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원주의 사회인 만큼 다양한 가치관들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되는 데에 가장 큰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역시 사회생물학적 개념으로서의 ‘도덕’이다. 하나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른 두 집단은 서로를 상대적인-각 집단 내부에서는 절대적이겠지만-‘죄인’으로 이해하게 되지만 다원주의 사회에서 각 집단들은 불편한 동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역사가 짧은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그 이상의 전개 양식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듯하다. 다양한 의견이 건강하게 공유되고 또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아직 없으며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단순히 확인하고 그 다름으로부터 도피하는 수동적 차원에 머물러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을 재확인하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더욱 결합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그 긴장을 감내하는 면역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역력이 있어야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이 논의할 수 있는 단계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죄인’으로 정죄하게 되는 타자로서의 집단을 용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 5:45) 라는 성구는 다원주의에서 살아가는 시대를 위한 말씀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선인과 의로운 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신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성구는 ‘나’와 다르므로 타자로, 그리고 죄인 혹은 악인과 불의한 자로 정죄하게 되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성구라고 여겨진다. 악인과 불의한 자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다원주의 사회에서 ‘나’와 다른 타자를 용인하고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2.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위상

다원주의 사회는 기독교에 어떤 도전을 주는가? 다원주의는 기독교적 가치 또한 하나의 개념으로 축소시키므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인가? 실제로 다원주의를 근거로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동일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되어 기독교적 가치관만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졌으며 오히려 종교적 가치는 선택의 영역에 편입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원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선한 선물이라 생각된다. 다원주의를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와 다른 가치들을 병렬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차이와 공통점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가치들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와 연결되는 개념들을 각 개념들에 대한 또 다른 창의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으므로 기독교 가치의 스펙트럼이 보다 다양화되어 보다 선명하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과 차이점들 혹은 기독교에 도전을 주는 가치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적 메시지를 보다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예로부터 기독교는 영지주의와의 논쟁을 통해 기독교적 정통성을 크게 발전시켜 왔고, 숭한 이단 논쟁들을 통해 기독교적 정체성을 확립해 왔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은 더욱 많은 가치들에 도전을 받고 있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다원주의 사회는 기독교가 더욱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름진 토양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더욱 선명하게 그것의 진리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신과 기독교적 가치들은 ‘진리’로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만,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신앙에 입각한 기독교적 진리는 그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가 소통의 허브(herb)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기독교는 신앙인과 비신양인을 포괄한 우리의 시대에 여전히 그 진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기독교인들에게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절대적인 것, 객관적인 것으로서 그 개념은 기독교의 ‘하나님’에 상응한다. 성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상정하고 있는 절대 진리는 신의 존재와 성자의 수난과 부활이다. 이렇듯 기독교인들에게 진리는 외부에서 계시로서 주어진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에게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보다 사회생물학적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상대적인 것, 주관적인 것에 해당하며 F.니체에 의하면 진리의 매개체인 언어는 실재에 도달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므로 그 언어에 근거해서 상상되는 진리라는 개념도 인간이 만들어 낸 허상이며 허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진리란 것은 철저히 유용성에 입각해서 인간이 생존과 유지를 위해 만들어낸 메커니즘에 불과한 것이다. 니체의 진리관과 다윈의 진화론 및 월슨의 사회생물학에 입각한 진리관들은 각 시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즉, 비기독교인들은 진리를 보다 상대적이고 인공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다소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사회가 상정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가장 ‘매력적’이고 ‘설득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아 역사에 영향을 미칠 권력을 얻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소비주의와 맞물려 생각한다면 진리를 ‘선택’, ‘소비’한다는 것은 더욱 자연스러운 개념으로 이해된다. 다원주의 사회이므로 각 진리 소비자들의 선택은, 사회 구성원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철저히 존중된다.

여기에 기독교가 사회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기독교는 신앙의 영역에서 고려하지 않더라도, 매우 풍부한 정신적 자원을 지니고 있는 종교다. 절대자가 절대약자인 피조물을 위해 희생하는 메커니즘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복음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패자의 니힐을 극복하게 하는 탁월함을 지니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니힐을 극복하기 위한 훌륭한 자원이, 다원주의 사회 하에 다른 어떤 가치들이 아니라 왜 기독교의 가치체계 안에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기독교적 가치의 확산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어서 적절한 예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독교가 비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진리성을 드러내는지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2.3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진리성: 신자유주의 시대와 패자의 니힐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사람들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자신의 시장가치-즉, 임금-를 자신의 사용가치 혹은 존재가치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것은 매우 파괴적인 정체성으로서, 제로섬 게임인 시장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형성하게 되면 반드시 패자와 승자 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맘몬주의 사회인 오늘날, 개인의 시장가치를 시장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자신의 존재가치로까지 연결시키게 되면 패자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다.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외부 시장에서 결정짓는 오류는 파괴적이고 패배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인 요소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 시장가치가 없으면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이해하는 패자의 니힐이 만연한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시장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시장’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는 모든 상황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한번 형성되면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특징을 지

니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돈을 매개로 한 시장의 원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개념에 까지 시장적 원리가 점령하고 있다는 비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마이클 샌델도 시장적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을 단면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하며, 시장 그 자체는 오히려 중립적이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야기할 때, ‘어떤’ 수요자와 공급자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다르게 이해하면 건강한 기독교적 윤리에 입각한 시장적 원리를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수요자가 존재하고, 그런 의지를 수용할 의지를 가진 공급자가 만나서 형성되는 시장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최초의 경제학자이자 윤리학자, 신학자이기도 했던 ‘애덤 스미스’는 ‘시장’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선한 성질과 목적을 갖고 있다고 이해했다. 즉, 하나님의 분배 메커니즘으로서 시장을 선한 도구로 이해한 것이다. 시장의 순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 신학자 폴 티리히의 개념을 빌리면, 시장은 악마적 힘(Demonic Power)을 지니고 있다. 방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다른 양태로 드러날 뿐, 시장이 갖고 있는 역동성과 창의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시장을 긍정한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 윤리에 입각하여 소비하기를 원하는 수요자로서 존재하고 있는지의 여부인 것이다.

그러나 공급자는 어떠한가? 시장은 공식적이고 공개되어 있으며 공론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자의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의지에 부합하는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가 지금 논하는 공급자라는 것은 이윤 창출을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공급자라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 하에 패자로 분류된 자들이 상처를 입고 음지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지에서 스스로 발을 딛고 빠져 나와 공론의 자리인 시장으로 무덤덤하게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패자는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더욱 어둠 속에서 숨겨지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그들 앞에 ‘시장’이라는 것은 거대한 자본주의의 산물로서, 그들이 감당하고 마주하기에는 너무나 큰 벽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 소비자들 또한 그런 시장의 일부로서 그들에게 의식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존감에 상처 입은 자들이 음지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일방적으로 돕기만 한다면, 그들의 삶은 유지되고 그 동정에 고마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다. 어쨌든 그들이 사회와 단절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봉사자들에 국한된 사회가 전부일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회에 온전히 속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진정한 행복은 느끼기 힘들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는 자립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그들이 다른 공급자들과 같은 자격으로 시장에 공급자로서 참여하는 것, 그러한 그들의 자립을 응원하는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적 소비자들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시장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런 시장적 원리가 정착되어 윤리 소비 습관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자립과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이런 윤리적 시장의 원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예시 중의 하나는 노숙자들에게만 잡지 판매권을 허용하고, 파격적인 조건으로 노숙인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게 하는 ‘빅이슈’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자존감에 깊이 상처를 입은 공급자들이 어떻게 공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윤리적 시장 원리가 형성되는 것은 일단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패자로 분류된 이들이 다시 거대 자본주의의 소비자 집단과 마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문제에 기독교 복음이 해답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타 종교와 구분되는 독특성은 강자가 약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했다는 교리이다. -상대적으로-약자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졌기에 약자를 위한 세상은 어디에도 없다고 굳게 믿고야 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자신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신의 자녀’라는 정체성, ‘돈’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내’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인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위계질서를 명확히 하고,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버림받은 이 사회에 다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탁월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체성을 회복한 패자들은 세상-여기서는 시장-에 다시 나아오고, 그로 인해 기독교적 윤리 소비에 입각한 시장적 원리가 발생, 정착, 확산되어 간다.

이렇듯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성과 탁월성을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을 통해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은 분명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패자의 니힐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진리란 인간이 매력적이고 설득적이라 여기는 것을 선택하여 발전시켜 온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독특성과 탁월성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진리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적 가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진리성을 인정받는다고 생각되며,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가 더욱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향기롭게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2.4.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소통: 기독교적 가치의 세속화

일찍이 성과 속을 구분하고 속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믿기를 권유했던 중세 시대의 소극성을 버리고 세상의 한 가운데, 중심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로 주장했던 종교개혁자들과 경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주장한 칼빈, 직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생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선함을 주장했던 막스 베버까지, 기독교적 가치가 ‘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소극성을 벗어나 세상의 한 가운데에서, 즉 세속에 중심을 두어 이 세상의 중심에서부터 기독교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주장했던 많은 학자들이 있다.

다원주의 사회는 다름으로 인한 폭력을 예방하고 ‘소통’을 시작하기 위한 장치로 출발했지만, 다름을 쉽게 용인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든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소통에 더욱 목말라 있는 것 같다. 다원주의 사회는 기독교를 하나의 개념으로 축소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무수히 많은 가치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 사회는 여러 종류의 니힐을 해소해 줄 진리가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며 그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다. 기독교의 복음은 패자의 니힐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회와 다시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풍부한 정신적 자원을 갖고 있다.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기독교의 고유성과 독특성, 탁월성은 다른 가치들과의 병렬적 비교 속에서 큰 빛을 발할 수 있으며 그것들로 인해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진리성을 드러내고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진리에 목말라 있는 다원주의 사회 하에서의 사회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전파하고, 신의 자녀로서의 개인의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속세의 메커니즘인 시장을 기독교적 가치의 윤리가 실현되는 장소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적 가치의 세속화이다. 진정한 기독교적 가치의 세속화란 진리에 목말라 있는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여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원주의 사회를 통해 기독교가 직면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가치를 공유하고 그것으로 소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다른 기독교적 가능성을 제시하여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기독교의 역동성을 활발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3. 결론

이상으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나와 다름’을 용인하기 어렵고 정죄하게 되어 소통이 더욱 단절되어 가는 다원주의 사회에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약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를 생각하며 ‘타자’를 용인하고 감내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가치관의 홍수 속에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리-특히 신자유주의 시대 하의 패자의 니힐을 극복하는 것-의 풍부한 자원을 지니고 있는 기독교인 만큼, 다원주의 사회는 기독교의 독특성과 탁월성이 다른 가치들과의 병렬적 비교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환경임을, 그러므로 기독교인을 비롯한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진리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다양한 가치들의 도전을 통해 기독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원주의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여 기독교적 가치를 속세의 중심에서 형성시켜 나가는 것-예를 들면 속세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시장을 기독교적 윤리에 입각한 소비자와 신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공급자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소통의 허브(herb)로서 기독교적 가치를 매개체로 속세와 끊임없이 상호작용, 관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다원주의 사회와 기독교적 가치가 활발히 소통하여 기독교적 가치의 적극적인 세속화가 이루어져 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글을 마친다.